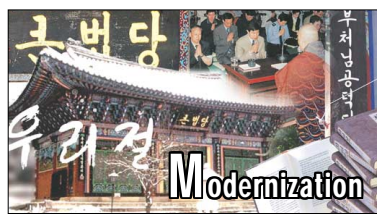




불교의 생활화

- 1~2면 재가불자 행복지수 설문
- 3면 조사선은 생활 선이다
- 4~5면 생활선 실천 현장
- 7~9면 3국 3거사의 수행현장



불교의 현대화

- 11면 불교현대화 어디까지 왔나
- 12면 현대화 분야별 점검
- 15면 '불교 응용학'의 근거와 방향
- 17면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



불교의 세계화

- 19면 세계인 '원호'
- 20~21면 해외교포의 현주소와 비전
- 23면 티베트불교 세계화 성공비결
- 24면 미국 서부대서 배운다

“불자라서 행복하다” 85.6%

불자 '행복지수' 설문조사

불자들은 불교 속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불교는 불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재가불자들의 행복지수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수행 및 수행행태나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가불자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9월 1~30일 한 달간 전국 사찰의 신도회, 청년회, 수행단체, 직장직능단체 불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지는 총 8천부를 발송했으며, 1,523명이 응답했다.

불자 행복지수 일반 국민보다 높다

본지 설문 응답자들이 답한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계산한 결과 불자들의 평균 행복지수는 63.94점이었다. 이는 호서대 산업심리학과 김명소 교수팀이 2003년 전국의 남녀 2,0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 57.71점보다 6.23점 높은 것이다.

남녀별로 보면 본지 설문조사 결과 남성 64.93점, 여성 63.61점, 김명소 교수팀의 조사 결과와 남성 58.59점, 여성 56.87점으로 두 조사결과 모두 남성의 행복지수가 약간 높았다.

물론 두 설문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본지 조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지수를 체크한 결과인 반면, 김 교수팀의 조사는 70개의 항목별 행복지수를 종합한 결과다. 하지만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등급(0~10등급)분류 방식이 같고, 또 평균 행복지수와 남녀별 행복지수의 편차가 거의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설문조사의 불자 행복지수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간의 차이가 경제 사회 문화 환경보다는 개인적 성숙과 관련된 특성들(여가 및 자유추진, 긍정적 인



생관, 자기 수용감 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김 교수팀의 분석결과는 불교를 신앙하는 불자들의 행복지수가 일반 국민보다 다소 높게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다.

'불교와 행복' 긴밀한 관계 90%

불자들은 불교를 믿음으로써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를 믿음으로써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6%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53.8%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고, '자주 한다'는 응답도 31.8%나 됐다.

불교가 자신의 현재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도 86.4%에 달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대안이 46.5%를 차지, 불자 2명 중 1명은 불교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지금 행복하다" 60.4%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10점 만점 중 5점)이라는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다. '매우 만족한다'(9~10점)는 응답은 15.6%였으며, '매우 불만족스럽다'(1~2점)는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 쪽(6~10점)의 응답이 60.4%로 '불만족'(0~4점) 9.1%보다 훨씬 높았다.

특이한 것은 '만족' 쪽 응답자 238명 중 30%가 '만족을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종교'를 가

장 많이 꼽았다는 점이다. 종교 다음으로는 건강(20.6%)·가족관계(22.7%)·일을 통한 자아실현(16.4%) 순이었다. 돈이나 명예라고 답한 사람은 8명(3.3%)에 그쳤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서도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불자들의 가치관은 그대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응답은 역시 '건강'(52%)이었지만, '종교'·'일을 통한 자아실현'·'가족관계'가 각각 12.7%로 나타나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

불교가 삶을 바꾼다 65%

응답자의 65%가 불교를 신앙하면서 자신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으며, '불교의 가르침이 생활 속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도 84.8%에 달했다. 또 계율을 잘 지키면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81.5%나 됐다.

불교를 믿는 이유로는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33.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해'(25.4%)·'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해서'(20.9%)·'나와 가족의 복을 구하기 위해'(9.9%) 순이었다.

이 네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불자들은, 불교가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거나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자들에게 살고있다 35%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1%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경우는 40.1%

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8%. 또 자신의 일상 수행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쯤 된다'(29.7%)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평가(37.4%)가 긍정적인 평가(32%)보다 다소 높았다. 생활 속에서 계율을 잘 지키는 응답자 역시 9.8%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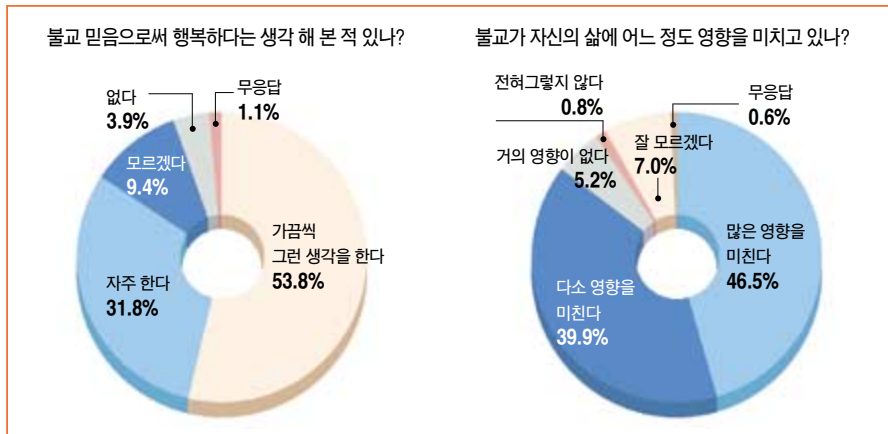
'현재 하고 있는 수행을 통해 금생에 깨달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이 42.4%로 가장 많았지만, 이와 비슷한 수의 불자들(41%)이 '모르겠다'고 응답.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율 현실과 동떨어져 불교에 실망

불교에 실망을 느낀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48%로, '없다'(36.5%)는 답보다 많았다. 그 이유 가운데 자신과 관련된 문제 때문인 경우는 계율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기 때문(2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외부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는 도반이나 불자들에게 실망감을 느낄 때(22.3%)가 많았다.

한명우 · 박봉영 · 유철주 · 김강진 기자

불자 10명중 9명이 불교를 믿어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자들의 행복지수가 일반 국민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종교생활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H CULTURE 늘 푸른 청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5대 사업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 불교전문교육사업 : “三學園” · 학술연구사업 · 문화교화사업 : 정기 ‘수행문화포럼’ · 전문출판사업 : 4대사업 성과물 및 기획출간사업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敎大辭林 회원’ 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 최대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치한 1차 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 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회원들에게는 위의 본원 출간 수행논서들이 함께 증정됩니다

가산불교대사람 예약 및 후원회원

- 현재 1·2·3·4·5·6권 출간! 7권 근간! 전15권 년차 속간 예정입니다.
- 전권금액 2,180,000원, 예약회원은 20% 할인하여 1,750,000(우편료 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람』 전권 구입을 희망하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6개월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206-6
TEL.765-9602~3 FAX.765-5673